
관상동맥 스텐트 재협착에 관한 S670 stent와 S7 stent의 전향적 비교

전남대학교병원

김인수, 이두환, 김정훈, 박수환

목 적 : S7 stent는 S670 stent에 비하여 stent가 strut thickness가 작고 shortening, recoil이 적으며 maximum expansion시에 cell area가 커서 분지부 병변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본 연구에서 전향적으로 S7 stent와 S670 stent의 장기적인 임상효과를 관찰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 2000년 10월부터 2003년 7월까지 88예의 환자에서 S670 stent 44예(58.0±11.85세 남자 13예)를 1군, S7 stent 44예(60.0±10.84세 남자 18예)를 Ⅱ군으로 하여 시술하였고, 각각 20예에 대해서 임상적 특징,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 그리고 추적관상동맥 조영술 소견을 비교 분석하였다.

결 과 : I. 대상환자의 임상적 특징

성별과 평균연령은 1군 남자 13예(65%), Ⅱ군 남자 18예(90%)로 남자가 Ⅱ군에서 많았다. 내원시 임상진단명은 안정형 협심증이 1군에서 8예(40%), Ⅱ군에서 ST elevation MI가 18예로 가장 많았고,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인자는 고혈압 1군 7예(35%), Ⅱ군 9예(45%), 고지혈증 1군 3예(15%), Ⅱ군 4예(20%), 흡연 1군 5예(25%), Ⅱ군 7예(35%), 당뇨 1군 3예(15%), Ⅱ군 7예(35%)로 차이가 없었다. 비출혈성 뇌혈관사고, 일과성허혈, 말초혈관 질환, 가족력에서 양 군간의 차이가 없었다. 심초음파 검사 결과에 의한 좌심실 구혈률은 1군 66.15±7.10%, Ⅱ군 63.30±12.49%이었다.

Ⅱ. 정량적 관상동맥조영술

목표병변혈관의 분포는 좌전하행지가 1군 12병변(60%), Ⅱ군 12병변(60%)로서 가장 많았고 양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. ACC/AHA분류에 의한 병변의 분류는 B1형 1군 15예(75%), Ⅱ군 14예(70%)로 가장 많았고 양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. 시술전 TIMI flow는 TIMI flow Ⅲ병변이 1군 8병변(40%), Ⅱ군에서 12병변(60%)으로 가장 많았다. 병변길이는 1군 12.33±3.96 mm, Ⅱ군 12.45±3.17 mm이었고, 기준 혈관내경은 1군 3.29±0.31 mm, Ⅱ군 3.30±0.26 mm로 차이가 없었다. 스텐트 길이는 1군 16.65±1.53 mm, Ⅱ군 16.35±1.53 mm로서 차이는 없었다. 스텐트 직경은 1군 3.34±0.30 mm, Ⅱ군 3.33±0.26 mm로서 차이는 없었다.

Ⅲ. 추적 관상동맥조영술

1군과 Ⅱ군 20예(45.4%)에서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이 시행되었다.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재협착은 1군 9예(45%), Ⅱ군 0예(0%)이었고(P=0.001), 내경협착은 1군 36.29±19.70%, Ⅱ군 16.52±10.11%(P=<0.001)로 Ⅱ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.

결 론 : S7 stent는 S670 stent에 비해 재협착이 유의하게 낮았다.